

안전·신뢰성 바탕 잠재력 극대화 '비단길' 연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성공 전략

세계 최초 분권형거래소 성장 기대 가능 분리로 거래 위험 요소 해결 해킹·불공정 등 기술적 극복 가능 자발적 투자 의사결정 생태계 중요 계약·결제 안전 시스템 구축 필요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2024'의 주요 이슈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비단)의 출범이었다. 28~29일 이틀간 진행된 30여 개의 세션에서 비단이 언급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비단의 미래를 예측하고, 성공을 위한 지향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세션도 많았다. 각 세션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비단은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때 잠재력이 극대화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29일 BWB 2024 행사장인 해운대 시그니엘 부산에선 '세계 최초 분권형 거래소'를 주제로 3개의 대담 프로그램이 연속해서 열렸다. 첫 대담은 '시장 감시'라는 소주제에 맞춰 비단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방향성을 살피는 시간이었다.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이 대담을 이끌었고, 블록체인 보안 개발기업 '아브코' 심준식 대표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종희 교수가 참여했다.

임 특별보좌관은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면서도, 타 기술과의 융합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특별보좌관은 "블록체인의 어



29일 부산 해운대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2024'에서 '세계 최초 분권형 거래소'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통령실 임종인 사이버특별보좌관, 고려대 이종희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아브코 심준식 대표. BWB 사무국 제공

떤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하는 관리적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졌다"며 "AI가 위성기술 등과 결합하면서 블록체인 위합적 요소들이 많이 해결되고 있고, AI 등과 만나면서 디지털 전환도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해키는 노력 대비 얻는 게 많을 때 공격한다. 실물 자산을 다루는 거래소는 해킹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며 "비단의 핵심은 '분리'다. 기능 분리는 위험성을 떨어뜨린다"고 평가했다. 거래소는 해킹을 비롯해 거래가 조작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의한 엄격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심 대표의 설명이었다.

이종희 교수는 해킹 위협이나 불공정

거래의 불안감은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안정한 상품의 기준'이라는 두 번째 대담은 부경대 디지털금융학과 이현규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이 교수는 "정보에 대한 금증 없이 누구나 투자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며 거래소의 신뢰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했다.

대담자였던 하나증권 최원영 디지털 자산센터장은 디지털자산과 파생상품의 결합에 대해 "양날의 칼 같은 것이다. 자사의 위험 관리에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되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매일경제 엠블록 김용

영 이사는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이력이 짧고 전통 자산에 비해 가치 평가가 상당히 복잡하다"며 "정기적인 감사와 리포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산을 보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튿날 3번째 대담에선 한국기업법연구소 박형영 부소장과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기업 비덱스 류충열 대표가 계약·결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류 대표는 "안정적인 계약 결제를 위해선 보안을 비롯해 내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정부 규제에 대한 이해와 실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백성·이정훈 기자 k103@busan.com

최초 조선 산업 부흥 이끌었던 영도 블록체인 기술 입혀 새 미래 준비

디지털 아일랜드 영도 추진위 출범 데이터센터 개발·신산업 등 접목 일자리 창출·관광객 유입 제도약

최초의 조선소로 산업의 부흥을 이끌었던 영도의 재도약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 개발을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문화 산업과 선진화된 행정 시스템으로, 영도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을 유입하겠다는 게 추진위 설립의 목표다.

29일 부산 해운대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2024'의 메인 행사로 '디지털 아일랜드 영도 추진위원회(이하 영도 추진위)' 정식 출범식이 열렸다. 영도 추진위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비단) 김삼민 대표가 추진위원장을 맡았고 추진위원은 대성문 최진호 부사장, 모모스커피 전주영 대표, 영도문화도시 고윤정 센터장, RTBP 김철호 대표로 구성됐다.

김삼민 대표는 "과거 영도는 최초의 조선소가 시작된 곳으로,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를 가졌다"며 "남은 조선소 자리에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AI) 서버 호스팅 데이터 센터가 80MW(메가와트) 규모로 들어선다"고 밝혔다.

이러 "구 단위로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영도가 최초"라며 "소외된 영도에 극적인 발전을 보여주시는 게 추진위 출범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대성문은 현재 복합 개발과 함께 영도에 1000억 원 규모의 호텔 투자와 400세대 규모의 청년 장기임대주택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부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추가로 약속하며 "영도와 부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청년들이 다시 영도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모모스커피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치 소비를 증진시켜 관광객을 유입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전 대표는 "단순 커피에도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졌는데, 블록체인 기술과 커피 산업이 접목되면 원두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 부산에 도착했는지 투명하게 영도 추진위원회(이하 영도 추진위)" 정식 출범식이 열렸다. 영도 추진위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비단) 김삼민 대표가 추진위원장을 맡았고 추진위원은 대성문 최진호 부사장, 모모스커피 전주영 대표, 영도문화도시 고윤정 센터장, RTBP 김철호 대표로 구성됐다.

김철우 대표는 신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성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과거 조선과 제조업의 도시였던 영도에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해야 될지 고민 중"이라며 "내년부터 영도에 F&B(식품) 신산업 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 완화·특례 조치, 블록체인 도시 부산 성장 자양분"

부산 내부 산업 생태계 조성 노력 '특구 걸맞은 추가 지원 등 필요'

블록체인 기반 도시, 디지털 금융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 등은 부산이 꿈꾸는 청사진이다. 부산이 내부적으로 관련 산업과 생태계를 키우는 것 못지 않게 외부의 조건도 청사진 현실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외부의 조건은 정부의 규제와 지원이다.

29일 BWB 2024에선 '부산을 둘러싼 규제와 특례, 그리고 해결 방안'이라는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동국대 국제

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가 진행을 했고 업계와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은 "핀테크협회에 520개의 회사가 있는데, 부산이 주사업장인 곳은 5% 남짓이다. 블록체인특구이다 보니 부사업장이 부산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냉정하게 현실을 평가했다. 이어 "특구라고는 하지만 부산과 서울이 다를 바 없다"며 규제 완화와 추가적인 특례 조치의 필요성을 말했다.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 채상미 위원장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도입해,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적인 실험을 유도한 뒤 사후 평가하는 식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언했다. 또 "해양 물류를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연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린' 구태인 대표변호사는 EU, 홍콩 등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지급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지급 결제 서비스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해 있다. 부산은 동백전을 블록체인 기술로 지급 결제 서비스를 하면 2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가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있었지만, 코인 이슈 때

문에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DSRV랩스 서병운 미래금융연구소장은 금융위원회 핀테크 담당 사무관 시절의 경험을 공유했다. 서 소장은 "토스가 직원 10여 명 남짓 스타트업 시절이었는데,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자금과 네트워킹이 문제였다"며 네트워크 강화, 금융기관과의 교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부산글로벌허브 도시특별법은 일종의 그릇이다. 그 안을 채울 생태계를 꾸리는 게 쉬운 게 아니다"며 부산 내부의 노력과 외부의 지원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백성·이정훈 기자



29일 'BWB 2024'에서 '디지털 아일랜드 영도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BWB 사무국 제공

부일안내

결혼상담
결혼전문상담사 전문상담사
010-5269-8258

주택·빌라
주말대처 1동대 175평대 54평
주말대처 1300평대 4차선
주인직 010-8332-3585

상가
急月 720만코너 18억
051-861-5799

마트★삼나미파노
010-8677-6406

대지
구서동지역 200평대 5천평
051-8633-3195

반값! 월미주말농장전기농
010-8365-1845

땅과돈이 계획도준공시
010-9512-9975

배달원 모집
051-404-4200 / 010-6789-0390

공매물류창고공정등록물시구
173평 1층전기 60K 공유면적
010-3839-0523

모집·부동산
010-3839-0523

상속한정승인공고
010-3077-5879

공람공고
010-6831-4477

부모·조상 영구위대 봉안
051-721-9500

자본감소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010-5537-5343

경성대양 상가매매
010-5537-5343

대박! 4층 상가
051-861-9496

김해·창원 공장 매매 및 임대
010-2488-2099

부도·조상 영구위대 봉안
051-721-9500

부전시장(매매/임대)
010-2862-0363

아파트(매매/임대) 주전
010-9600-0211

거제도부동산
055-634-4985

월720 지하철암
051-861-9496

배달원 모집
010-6789-0390

부산일보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하고
구독료 1,000원 할인해 드립니다.
051-861-9496

자동이체(계좌·카드) 신청방법
1544-7044로 전화하여 상담원 안내에 따라
010-6789-0390